백제와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660년까지 약 700여 년 간 존속한 한국의 고대왕국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의 왕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고고학적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공주·부여·익산의 유적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해당된다.

- 공주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 부여 :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 익산 :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이다. 또한,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이를 다시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해준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 KT&G빌딩 5층

연락처 : 042-488-9726

홈페이지 : http://www.baekje-heritag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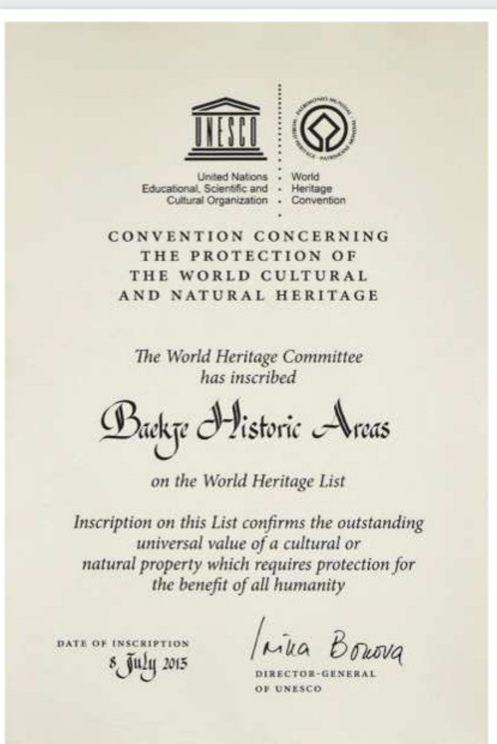
블로그 : https://blog.naver.com/unescobaekje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unescobaekje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baekje_historic_areas/

© 2019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orld Heritage Convention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inscribed

Baekje Historic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scription on this List confirm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a cultural or natural property which requires protection for the benefit of all humanity

DATE OF INSCRIPTION 8 Jul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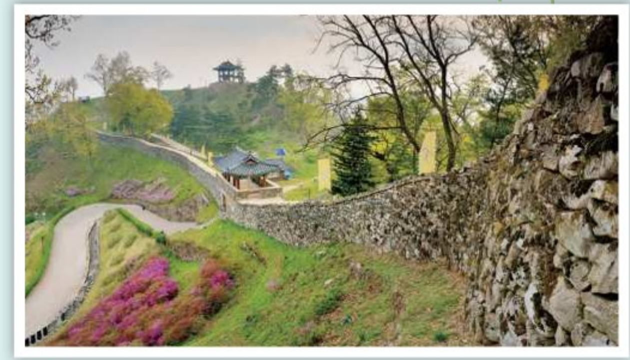
Irina Bokova DIRECTOR-GENERAL OF UNESCO

세계유산 등재 : 2015. 7.

공주 Go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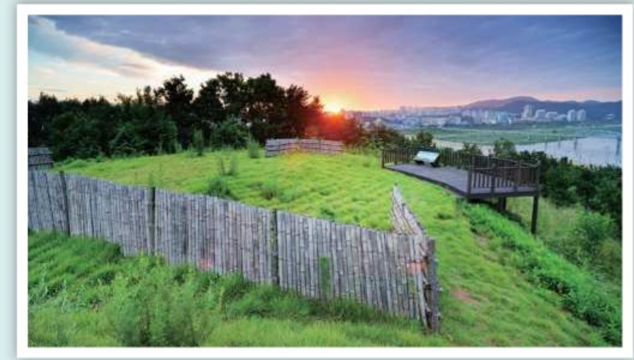
백제,
다시 강국이
되다

공주의 주요 백제유적



공산성

공산성은 웅진시기(475~538) 백제의 왕궁이 있었던 산성으로, 금강과 공산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왕궁지, 왕궁부속 시설지, 백제시대의 토성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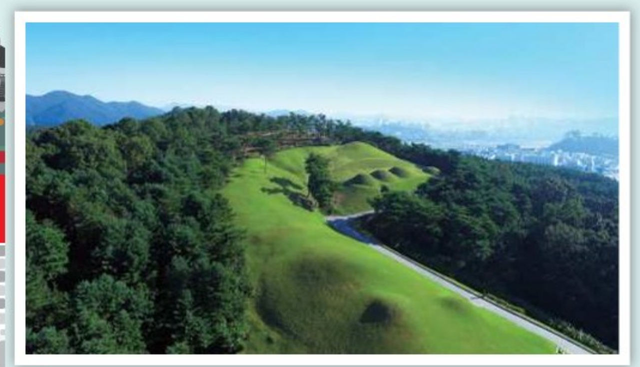


정지산유적

송산리고분군 북쪽의 정지산에 있는 왕실의 제사시설이다. 무령왕과 왕비는 이곳에서 상례가 치러진 뒤에 송산리고분군에 안장된 것으로 여겨진다.

수촌리고분군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부터 공주지역에 만들어진 고분군으로, 한성시기 중앙과 지방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는 백제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송산리고분군

송산리고분군은 웅진시기의 백제 왕릉군으로 7기의 고분이 정비되어 있다. 그 중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어 왕릉의 주인공과 축조시기(525)가 확인된 귀중한 사례이다.

옥녀봉성

공산성 동쪽에 있는 해발 60m의 옥녀봉 정상을 둘러쌓은 산성으로 잔존 길이는 870m정도이다. 서쪽 성벽은 공산성과 이어지고 있으며 출토유물, 입지적인 부분과 규모 등으로 보아 공산성에 부속된 산성으로 판단된다.

고마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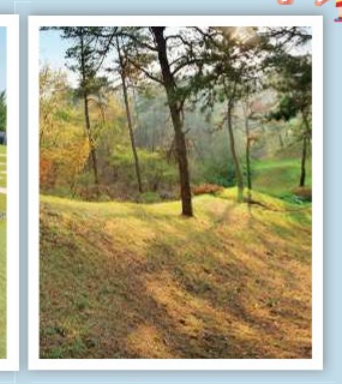
고마나루는 공주지역 금강 및 연미산을 포함한 송산리고분군 서쪽으로 전개되는 낮은 구릉지대와 금강변 나루 일대로, 공주의 태동지이자 곰과 인간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는 유서 깊은 명승지이다.

부여 Buyeo

700년
대백제의
꿈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부여의 주요 백제유적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사비시기(538~660) 백제의 왕궁 관련 유적으로, 발굴 조사결과 관북리유적에서는 대형건물지, 저장시설 등 왕궁의 주요 시설들이, 부소산성에서는 정교하게 판축된 토성이 확인되었다.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시대 왕궁의 배후산성으로, 평상시에는 왕궁의 후원 역할을 하다가 비상시에는 왕궁의 방어시설로 사용되었다.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사비도성의 중앙에 위치하였던 절터로,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장소였다. 화강석으로 제작된 석탑이 남아 있으며 각종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백제의 사찰은 탑과 금당이 일직선상으로 배치된 모습(1탑 1금당)이 특징인데 정림사지 역시 이러한 사찰배치의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궁남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으로 여겨지는 궁남지는 무왕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팠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근거로 궁남지라 부른다. 7월 중에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연꽃축제가 열린다.

나성

백제 후기의 수도였던 사비는 북, 서, 남을 금강이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였고, 동쪽부분만 인공적인 방어시설(나성)을 설치하였다. 나성은 한반도에서 새롭게 출현한 도시 외곽성의 가장 이른 예 중 하나로, 도시 방어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적 경계로서 역할을 하였다.

능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은 백제 사비시기 왕릉으로, 나성 밖에 위치하며 모두 굴식 돌방무덤으로 조성되어 있다. 1호분(동하총) 내부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백제 회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능산리사지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의 가람배치를 보여주며 나성과 능산리고분군 사이에 위치한다. 능산리사지는 왕릉인 능산리고분군의 원찰로 판단되며,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익산 Iksan

백제인들이
꿈꾼 미래

익산의 주요 백제유적

왕궁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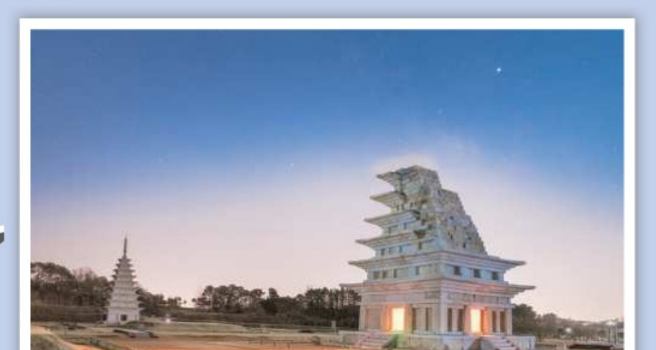
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기에 조성된 왕궁이다. 발굴조사 결과 장방형의 궁장 내부에서는 왕궁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되었다. 남쪽에는 의례나 정치와 관련된 건물이, 북쪽에는 정원과 후원이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석사지

제석사는 1탑 1금당식의 전형적인 백제 가람으로, 중국의 육조시대 「관세음응험기」에 의하면 무왕 40년(639) 벼락으로 불탄 탑 아래에 있던 심초석에 불사리와 반야경 등이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남아있어 새로운 절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쌍릉

2기의 무덤이 200m 정도 떨어져 나란히 위치해 있다고 해서 예로부터 쌍릉이라고 불리었다. 백제 30대 무왕과 왕비의 능이라 전해지며, 발굴조사 결과 부여 능산리고분군(동하총)의 규모보다 큰 왕릉급 무덤으로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인골의 분석결과 무덤의 주인공이 무왕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사찰터 중 하나이다. 미륵사는 미륵이 세상에 내려와 3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모습을 가람으로 구체화한 백제문화의 탁월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탑과 금당을 3곳에 배치한 독특한 가람을 보여준다.

익산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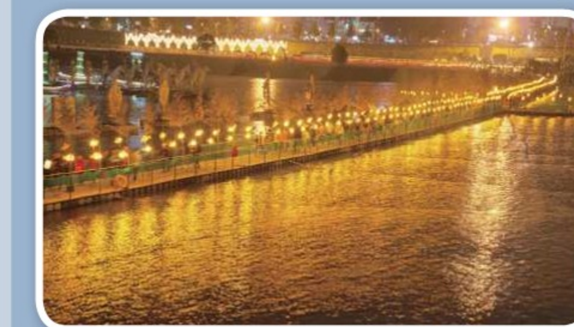
오금산에 있다고 하여 오금산성이라고도 불린다.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말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산성으로 확인되었다. 금마저(금마의 옛 이름)로 불리던 금마시가지와 왕궁평이 내려다보이는 지리적 요충지에 조성되었다.

입점리고분군

입점리고분군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부여와 가까이 위치한다. 백제 중반기의 다양한 형식의 고분들이 보이며, 익산의 정치·문화적 위상이 백제 말기에 그치지 않고 한성기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공주·부여·익산의 축제

백제문화제



백제문화제는 700년의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축제다. 각종 다양한 체험들과 볼거리는, 방문객에게 마치 1500년 전의 백제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기간 : 매년 9~10월
- 장소 : 공주, 부여 일원

공주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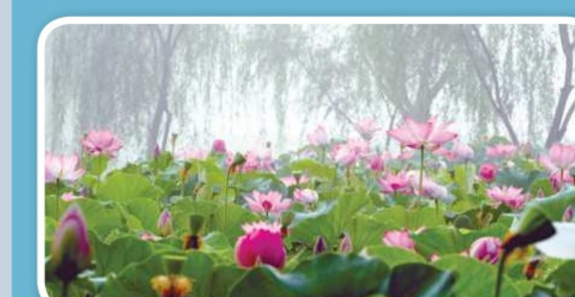
석장리 구석기축제

석장리 구석기축제는 구석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관광객의 체험·학습 축제로, 해마다 5월에 개최되며 공연, 전시,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어지는 축제이다.

- 기간 : 매년 5월 초
- 장소 : 공주 석장리 박물관 일원

부여의 축제

부여 서동 연꽃 축제



궁남지 주변의 10만여 평의 연꽃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 기간 : 매년 7월
- 장소 : 부여 궁남지(서동공원) 일원

익산의 축제

익산 서동 축제

익산서동축제는 1969년 마한 민속제전으로 시작했으며, 국경(백제, 신라)을 초월한 서동과 선화공주의 세계적인 사랑과 서동요의 본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서동 축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 기간 : 매년 5월
- 장소 : 익산 금마 서동공원 일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
안내지도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aekje Historic Are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5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청양군
공주시
유구읍
정안면
의당면
사곡면
신풍면
우성면
반포면
계룡면
이인면
탄천면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국립공주박물관
수촌리고분군
마곡사
갑사
동학사
신원사
계룡산국립공원
대전광역시
계룡시
칠갑산도립공원
보령시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부여군
규암면
장암면
석성면
초촌면
임천면
세도면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부여왕릉원
국립부여박물관
궁남지
백제문화단지
무량사
금강사지
서천군
양화면
논산시
성당면
웅포면
함라면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
낭산면
여산면
삼기면
금마면
익산시
오산면
춘포면
왕궁면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산
쌍릉
익산토성
제석사지
보석테마관광지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
전국 고속도로/철도 안내도
고속국도
KTX
철도
범례
전시, 박물관
선착장
국도
공원
지하철(4호선)
지방도
골프장
버스터미널
고속국도
대학교
휴게소
•발행처: (재)백제세계유산센터 Tel. 042)488-9726
•발행일: 2019년 8월
•기획·디자인: 대광출판사 Tel.063)224-5469
• 백제역사유적지구 안내지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체그림지도 특성상 실제거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